

북유럽을 다녀와서(上)

이 승 권 / 우리 협회 전문위원
건설안전기술사

Kansai air port Hotel은 關西國際航空內에 位置하고 있으면서 마치 日本을 代表하는 상징물처럼 建築美와 造形美를 갖춘 자랑하며 外國에서 入國하는 손님들을 맞고 있었다. 복잡한 移動없이 바로 投宿할 수 있는 反面, 地下鐵이 Kansai 공항 出入 國場과 Hotel 사이에 있어 Osaka 市內로 언제든 지 연결된다. 電鐵도 細分化되어 우리나라의 새마을 號 列車처럼 생긴 特急列車와 좌석 Bus처럼 의자가 배치된 急行列車, 그리고 우리 전철과 같으며 急行과 완행열차로 분리되어 무척이나 편리하게 利用할 수 있도록 運營되고 있다. 地下鐵 2期를 맞아 9個 路線이 完成되더라도 그만큼 日本에 뒤진 地下鐵이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오늘 이곳에서 일박하고 내일 Europe으로 向하게 되어 있어 夜間 列車로 오사카 Down Town을 돌아보고 오리지날 일본 우동으로 밤참을 먹고 最高의 施設을 自負하는 호텔에서 첫밤을 보낸다.

Holland 行 KL 818 便 항공기가 Kansai 공항을 이륙한 時間은 7月 27日 午後 1時 半이다. 出發地가 日本인 탓도 있겠으나 승객의 대부분은 日本을 비롯한 亞細亞人과 Europe 人들이다. 16時間의 비행 끝에 到着한 곳은 Sweden의 수도 Strockholm, 밤 11시쯤 되었으나 우리나라의 저녁때같은 느낌이다. 이곳의 여름은 새벽 2시 30분 쯤 아침 해가 뜨고 저녁 10시쯤 해가 진다고 한다.

北部의 아비스코 地方에서는 12月 初부터 1月 中旬 까지는 太陽을 볼 수가 없는 긴 밤이 계속되고 反對로 白夜에는 53日 동안이나 太陽이 저물지 않는 다고 하니 生活의 不便이 얼마나 클까 싶다.

노벨상과 복지의 나라라고 알려진 Sweden은 Scandinabia 반도 東쪽에 위치한 가늘고 긴 (1,574km) 나라로 國土의 7분의 1은 북극권에 속해 있으며 西쪽에는 노르웨이, 보트니아만, 발트해를 사이에 두고 北東쪽으로는 Finland와 舊소련, 南쪽으로 폴란드와 東獨이 있으며, 외레순 해협을 끼고 Denmark와 마주 보고 있다. 面積은 45만km²로 유럽에서 네번째 크기이다. 이중 山林이 約 50%를 차지하고 경작지 9%, 호수와 하천이 10%를 점유하고 있으며 호수의 수는 96,000개나 된다. 最大의 湖水 베네른은 5,585km²로 유럽에서 제일 크며, 山은 케브네카이세산으로 높이 2,111m이고, 中部 이북 지방은 풍부한 산림지대이며 南部의 스코네 지방은 비옥한 農業地帶로 形成되어 있다. 인구 865만명의 입헌군주국으로 349名の 國회의원 中 108名이 女性의원이라니 女權의 優위성과 平等權을 알 수 있다. 實業率도 유럽에서 가장 낮아 안정된 상태이며, 우리나라에서 뽑내며 굴러다니는 Volvo와 SAAB 自動車가 여기서 生産되고 있다.

都市 中心地에 위치한 Sheraton Hotel에서 一泊한 후 市內 Tour에 들어갔다. 이곳도 바캉스의

季節이기 때문에 Sweden의 市民들 대부분은 휴가를 떠나 없고 市內에 다니는 사람들은 外國人으로 보면 틀림없다고 한다. 관심거리인 都市計劃과 建築양식, 도로, 교량, 造景들을 돌아보며 우리나라 現實과 比較해 본다. 市內中心街의 5층형 APT는 로마식 건축양식으로서 120여년 전에 이곳 민속촌을 설계한 하셀니우스가 世界最初로 設計했다.

Skyline은 市民들이 決定한다. 10층의 고층건물 5개동을 건설하고 도시를 망쳤다고 개탄한다. 우리나라 도시에서는 建築法 등에 의해 건물의 크기와 높이의 제한을 받으며 넓은 부지 위에서는 대부분 인접하는 건물의 높이와 형태에 관계없이 고층건물이 세워지며 20년만 지나면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하여 살던 건물을 재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마구 헐어버리고 都市美觀과는 관계없이 아파트를 지어서 특징없는 졸작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기본적인 환경 조화와 韓民族 固有의 歷史性이나 古典美가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Stockholm의 中心街

Sweden에서는 처음 市街地 全體의 造형 계획을 公문이라는 자치제에서 결정을 한다. 建築計劃은 建物 개개의 문제에서가 아니라 시가지 전체의 입체적인 조화에 의해서 취급된다. 1구획의 시가지 造형이 결정되면 그 형태를 따라 각각의 빌딩이 맞춰가는 것이다. 市民의 감시 아래 수백년 후에 이어져 나갈 역사성을 전제로 하고 건설문화의 기반을 다져가는 것이다.

地上電車와 대중교통이 공존하는 道路計劃은 당초부터 10車線 以上 되는 도로부지를 확보해 놓고 교통량의 증가에 따라 예산을 맞추면서 도로 양쪽에 각 1차선만 完工하여 사용하면서 추가 소요가 발생될 때 도로 中央쪽으로 한 車線씩 岩發破를 하면서 필요에 따라 확장하고 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우리나라식 도로 보상문제는 발생할 수가 없는 것이다.

中央 부분이 높든지 平地든지간에 造景에 의한 분리대로 도시계획 당시부터 운영해 온 이 나라 옛 都市計劃 專門家들의 지혜에 절로 머리가 숙여진다.

또한 이 나라는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므로 크고 작은 섬을 이어주는 교통도로상의 수없이 많은 교량들은 그 어느 한 개도 예술품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하며 상징적이다.

13세기부터 오랜 도시를 기초로 인간환경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현대적인 計劃理論에 따라 發達해 온 시가지의 아름다움에는 한 마디로 감탄을 금치 못한다. 모든 것이 그림이요, 조감도이며, 自然과 人間이 협연하는 교향곡이다.

Stockholm을 代表하는 City Hall 청사를 찾아갔다. Stadshuset는 멜라렌 湖半에 건축되어 있는데 붉은 벽돌조건물에 종탑이 출렁이는 파도와 함께 우아하고 엄숙한 기품이 감도는 자태를 자아내고 우람하게 서 있다. 시청사는 건축가 라구날 오스트벨리의 設計로 1912~23년에 완공되었으며,

계획기간도 10여년이 걸렸다고 한다. 이 건물은 내셔널 로만 양식으로 북유럽 중세풍의 Design이 독특하며, 베니스 궁전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外觀은 시청이라기보다 궁전이나 고성같은 분위기가 느껴진다. 106m의 탑, 건물 전체를 지배하는 적벽돌의 질감, 고딕풍의 창, 비잔틴 스타일의 금색장식 등 다양한 양식이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다.

內部로 들어가면 우선 Blue hall이라는 커다란 공간이 있는데 中世 이탈리아의 광장을 연상케 하는 Design으로, 높은 창을 통한 效果의인 채광으로 因해 赤壁磚의 벽면이 부드러운 음영효과를 낸다. 콘서트나 각종 의식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가장 有名한 것은 12月 10日에 行해지는 노벨상 수상 祝賀 만찬이라고 한다.

12월 10일은 여기서 태어난 Nobel이 死亡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이며 세인트 루시아 축제도 行하여지는데 순교한 루시아로 분장한 女主人公은 “산타루치아” 노래를 부르면서 과자를 나눠준다. 2층은 바이킹 르네상스 양식으로 구성된 첫정을 가진 市議會의 회의장으로 우리나라 國會 회의장의 축소판같은 모양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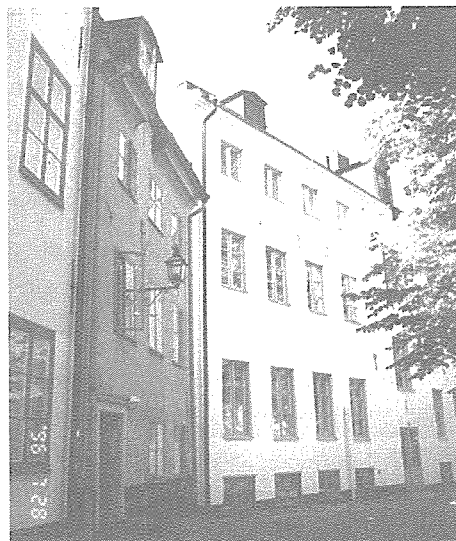
200년 전의 고블랭織을 利用한 태피스트리로 둘러쌓인 원형의 작은 房은 매주 주말이면 市民들의 결혼식장으로 사용된다. 노벨상 수상 파티의 무도장으로 사용되는 황금의 방은 1,900만개의 금박 모자이크로 장식된 벽면이 매우 호화찬란하다. 복도에는 시정(市政) 공헌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직업의 귀천에 관계없이 勳상을 만들어 업적과 함께 복도 양쪽에 가득히 세워 놓았다. 탑 맨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사각돌이 계단은 골목따라 조적한 벽들의 공학적인 맞춤과 쌓기는 구조역학을 利用한 힘의 분산의 극치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Gamla stan이라고 하는 구시가지는 지금까지 中世가 살아 숨쉬고 있는 特異한 곳이다. 넓은 建物들과 꼬불꼬불하고 좁은 길,

넓어진 鋪石이 오랜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얇은 山이라 할 수 있는 언덕 위에 城이 세워지면서 함께 쌓은 성벽안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13世紀 中半 무렵이다. 15세기경 지각변동에 의한 지반 상승으로 건물들이 기울고 심한 균열들이 여기저기 많이 發生되어 있으나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살고 있으며, 좁은 골목길은 마차가 다닐 때를 기준으로 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건물과 건물 사이의 도로폭이 90cm에 불과하다.

또한 城 앞에 줄지어 서 있는 3층 住宅 中 건물 앞벽에 窓로 건축연도를 새긴 1630년이라는 글자판을 보면 지은 지 360년이 지났는데도 새 집처럼 깨끗하고 구조상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20년만 지나면 再建築을 일삼는 우리네 住宅개념과 비교하면 얼마나 부끄럽고 낮 뜨거운 일인가.

감라스탄의 북쪽에 세워진 王宮은 3층 건물이지만 60년간의 공사끝에 1754년에 완공되었다고 한다. 이탈리아의 바로크와 프랑스의 로코코 양식을 도입한 건축물로서 約 600여개의 房이 있다고 하는데 일반이 관람할 수 있는 곳은 왕궁내의 2층과 3



Sweden Stockholm의 구시가지(1630년 건축) 360년 이상된 건물들이 즐비하지만 새 집과 같다

층의 베르나도테의 방과 만찬회실, 영빈실 등이다.

로코코 양식의 인테리어, 호화로운 고블랭 태피스트리, 450kg의 크리스탈 상들리에, 왕족들이 사용하던 은 그릇과 유리제품, 페르시아 융단 등이 불거리이며, 동쪽에 있는 보물의 방에는 12명의 역대 국왕과 여왕의 왕관, 보검, 보물류가 전시되어 있다. 그 중에는 700개의 Diamond와 진주, 루비로 장식된 1561년의 에릭 14세의 대관식 때 사용된 왕관도 있어 찬란했던 왕가의 전성기를 엿볼 수 있다.

Urgoden 섬의 Scansen 서쪽에 세워진 바사 박물관(Wasamuseet) 建物は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를 그대로 둔 채 건물을 지어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1980년 建築設計公募展을 통해 入賞한 作品으로 博物館을 지었다고 한다.

展示된 Wasa 號는 現存하는 最古의 完全한 배로 Sweden이 強大한 戰力を 자랑하던 王 Adolf Gustaf II세 때 건조한 것으로서 獨逸의 30年 종교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1628년 8월 10일 왕궁 근처의 부두에 처음 항해를 하려 하였으나 정박해 있는 동안 돌풍의 습격을 받아 수심 32m의 해저로 침몰해 버렸다.

그후 1956년 海洋 고고학자 Andes pransen에 의해 발견되어 1961년 4월, 333년 동안 해저에 있었던 船體를 水面으로 인양하는 데 成功하였다. 保存狀態는 비교적 양호했지만 급격한 건조의 방지와 곰팡이 발생방지를 위해 化學처리를 하였으며 많은 부품을 맞추고 분실물을 새로 제작하여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해 놓았다.

바사호의 規模는 全長 62m, 폭 11.7m, 높이 50m로 상당히 큰 배이며 180개의 조각 장식품과 뒷부분의 木造 부분은 金色으로 장식되어 휘황찬란하다. 1988년 12월 6日, 27년간 가보존관에서 바사호는 최후의 항해 250m를 끝으로 새로운 항구에 예인되어 지금의 박물관에 전시물로 남아 있다.

Stockholm 왕궁 南쪽에 세워진 大寺院 Storkyrkan은 이곳에서 가장 오래된 유서깊은 敎會이다. 1279년 最初로 建立된 후 몇 차례의 増改築을 거쳐 1480년에 現在의 모습을 갖추었다. 建築構造의 양식은 고딕과 이탈리아의 바로크 양식으로 예부터 國王이나 女王의 대관식과 結婚式 등의 의식이 행하여진 장소였으며 1976년 현재의 국왕 칼 16세 구스타프 왕과 실비아 왕비와의 결혼식이 있었다. 内部로 들어가면 정면에 흑단과 鐵으로 만든 제단, 바로크 양식의 왕좌, 설교대와 함께 1489년에 제작되었다는 “세인트 조지와 용”의 목각 등이 있으며 1주일에 한번씩은 콘서트가 개최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가 본 곳이 밀레의 조각公園이다. Sweden의 代表的인 조각가 칼 밀레스(1875-1955)의 조각품이 정원속에 전시된 곳으로서 Milles의 저택과 Garden에 本人의 作品은 물론 그가 生前에 수집한 회화와 조각들이 넓게 展示되어 있다. 作品은 Greece와 北 Europe 神話를 Thema로 한 것이 많아 대체적으로 작품 분위기가 밝고 북유럽인들의 역동성을 잘 表現하고 있다. 경사가 급한 계단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면 전망이 트이면서 발트해가 내려다 보이는 Terrace에 신의 손, 제니우스, 인간과 페가소스 등 大作의 조각작품이 줄지어 세워져 있다. 분수대를 利用한 물위의 시원함이나 우거진 수림 사이에 적절하게 배치한 作品 주변의 이상적인 환경이 작품 世界의 效果를 더해주는 듯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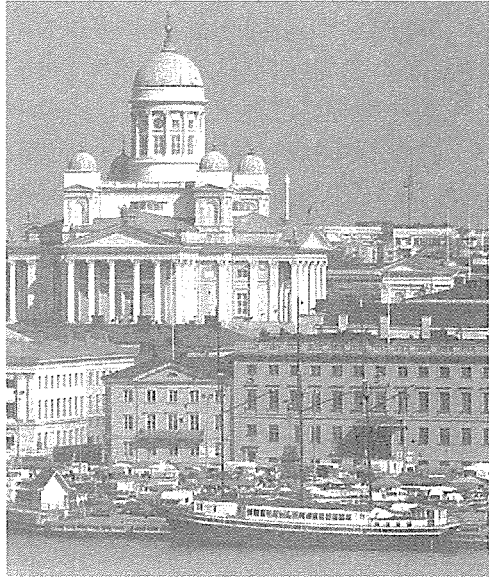
핀란드의 수도 Helsinki에서는 7월 29일 아침 7시에 호화유람선 Silja Line으로 13시간만에 Olympia 부두에 도착했다. '90~'91년에 건조한 이 유람선은 배라기보다 建물이 바다 위에 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편하다. 12층 높이로 된 이 배는 5층까지 차량 등 화물을 싣고 11층까지 客室과 각종 食堂, 市場, 免稅店, bar, 극장, Show Room, 사우나실, 수영장 등이 있으며 Hotel 방 985室과

2,980개의 침대, 그리고 400대의 승용차(Bus 60대)와 3,000명의 인원을 태울 수 있는 203m×32m-58,400톤의 규모를 자랑하는 거대한 배로서 종업원 수만도 3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산림과 호수의 나라, 사우나로 有名한 Finland는 國土 34만 km², 人口 500여만명으로 대부분이 湖水로 되어 있어 국민 1인당 호수 1개씩이 할당될 만큼 육지의面積은 매우 적은 나라이다. 핀란드인은 Sweden이 전달해 준 뛰어난 유럽문화를 받아들여 文化水準이 매우 높으며 年金과 保險, 福祉施設 등이 완비되어 있는 고도의 사회복지국가로서 상업디자인과 함께 建築 수준이 世界的인 位置에 와 있다.

Helsinki 市街를 代表하는 것은 亦是 元老院(Senaatintori)광장이다. 높은 언덕에 위치한 대성당을 中心으로 우측에 官街와 좌측에 헬싱키 大學 建物, 아래로 시청사가 구성된 正方形 광장에는 約 40만개의 화강암이 깔려 있고 그 中央에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2세의 입상이 늑늑하게 높이 서 있다.

성 니콜라스 대성당(Tuomiokirkko)은 카를 앙겔이 설계한 것으로서 돔을 축으로 한 좌우 대칭적인 디자인으로 처음에는 中央의 대형 돔 하나뿐이었지만 設計者 앙겔이 죽은 후 다른 建築家의 변경 설계에 의하여 작은 돔이 4 귀퉁이에 추가로 설치됐다고 하는데 작고 단조롭게 건축하는 우리들의 성당 규모에 비하면 정말 웅장하고 위압감이 느껴진다.

바다의 푸른색에 둘러 쌓인 시벨리우스 公園은 핀란드의 대표적인 作曲家 장 시벨리우스(1865~1957)를 기념하여 에일라 힐투넨이 제작한 Stainess pipe 기념비와 함께 시벨리우스의 머리만의 초상이 세워져 있다. 누가 세상은 넓고도 좁다고 말했는가? 지역만리, 지구의 반대쪽, 그것도 정적이 드문 이곳 Sibeliuksenpuisto에서 고종 時쯤이 누님을 만났다. 정말 세상이 좁다는 것을 실감



Helsinki 시청사와 대성당

하는 순간이었다.

템펠리아우키오(Tempeliaukion)라는 教會는 작은 언덕의 땅 속에 묻혀 있어 언뜻 보아서는 건물이 있는지를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름도 Rock 교회, 岩石教會, 반석교회 등으로 불리운다고 한다. 自然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형태를 보존하면서 이 교회를 세우려고 設計를 公募한 결과 티모와투오모 兄弟의 作品이 선택되어 1969년에 완성되었다. 벽체는 사망이 떼어낸 바위벽 그대로이고 천정 주변을 원형으로 잘라내어 만든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光線이 마치 아침에 평화롭게 기도하는 흥현표 위윈 머리 위와 실내 거친 양벽의 바위에 부드럽게 내리깔릴 때는 정말 자연의 품안에 안긴 것 같은 독특한 느낌을 갖게 한다. 기둥과 보가 없는 6m의 단층구조에 음향효과도 좋아서 작은 콘서트도 자주 열린다고 하니 얼마나 자연에 복귀한 지하공간일까?

Manerheimin 거리에 면한 國立博物館 Kansallismuseo는 1902년에 Salinen, Lindgren, Gesellius 3명이 공동으로 設計한 作品

으로 건축되었다. 正面에 무거운 브론즈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가면 잠시 과거의 世界로 빨리 들어가는 느낌을 갖게 된다. 石器時代부터 現代에 이르기까지 핀란드 역사의 모든 자료가 진열되어 있고 선사시대, 유사시대, 민족사학의 3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각각 그 시대의 生活用品, 수렵도구, 민족의상, 교회변천사 등이 흥미롭게 紹介되어 있다.

우리가 서울 근교에 5개의 신도시를 만들듯이 핀란드는 일찍이 위성도시인 타피올라(Tapiola)의 도시계획을 40년전에 이미 수립, 실천하였다. “庭園都市”라는 別名이 말해주듯이 森林과 湖水, 구릉지 등을 전혀 파괴하지 않고 현대적인 住宅과 自然이 잘 조화되어 共存하고 있어서 자연속에 안겨 살아가고 있다는 표현이 꼭 잘 어울리는 도시이다. 헬싱키의 서쪽에 위치하는 타피올라는 1953년에 실시된 設計공모전에서 Arne Eilbi의 作品이 당선되었다.

都市 첫인상이 中央에 가장 높은(13층) Central Tower(오피스텔)를 中央으로 生活에 편리한 행정시설, 나즈막한 백화점과 상업시설을 두고 원형으로 퍼져 나가면서 지원시설인 마켓, 호텔, 교회, 체육시설, 공원, 그리고 원 외곽지역의 울창한 숲속에 그림처럼 아름다운 住宅들이 散在하고 있어 외관으로 보나, 환경으로 보나 아담하고 짜임새 있게 구성된 수백년 후를 내다본 都市計劃으로 보나 역시 人間이 살기에 最高인 都市라고 評할 수 있겠다.

Bed Town 기능에 APT 숲만으로 形成된 획일적인 단조로운과 비능률, 비생산적인 우리네 新都市와는 개념이나 차원 자체가 다른 것 같아 아쉬움이 더해진다.

비트레스크 湖水 옆의 얇은 언덕 위에 붉은 벽돌집이 아담하게 자리잡고 있다. 이 집을 일컬어 헬싱키를 대표하는 有名한 “건축가의 집”이라고 한다. 1898년 헬싱키대학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3인의

젊은 건축가 E. 사리넨과 H. 게셀리우스, A. 린드그렌은 1900년에 개최되었던 파리 만국박람회 핀란드館 設計를 계기로 우수성이 인정되어 國際的인 建築家로 변신한다. 그들은 교외에 자택을 마련하기 위해 Hvittrask에 1902년 각자의 作品에 의해 住宅을 짓고 그 후에 3동을 합쳐 建築學 研究所를 세워 세계적인 건축가로 활동하다가 죽은 후 지금은 건축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집의 특징을 보면 주거부분의 계단은 몸집이 큰 핀란드인에 비해서 의외로 비좁고 각 房들도 작게 설계되어 있어서 마치 미로처럼 되어 있으며, 자연의 온·습도차나 일광과 통풍을 매우 효과적으로 처리하였으며 붉고 커다란 삼각지붕은 도시의 번잡함을 떨쳐내기에 충분하며 품위있는 貴族의 別莊을 연상케 한다. 또한 산속같이 넓은 정원을 한 바퀴 돌아 하얀호수로 한참 내려가면 R. 피에타라가 設計했다는 원목 사우나가 호반에 접해 있다. 금방이라도 별거벗은 한쌍의 주인 男女가 젖은 땀을 씻기 위해 잔잔한 호수畔으로 뛰어와 풍덩 몸을 던질 것만 같다.

노르웨이로 떠나기 전에 우리 생활에도 익숙해진 핀란드 사우나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자. 사우나의 기원은 紀元前 수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핀란드 民族의 歷史와 비슷할 정도로 오래되었다. 지금도 핀란드인은 사우나광이어서 ‘사우나가 없으면 Finland人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란다.

대부분의 가정이나 공공시설에는 사우나가 있으며 특히 교외에 사우나용 작은 집을 갖고 있는 것이 그들의 자랑거리란다. 가정 사우나에 초대받을 경우에는 당신을 진실된 친구라고 인정하는 意味이므로 거절하는 것은 큰 실례가 되는 것이며, 主人측과 그들 가족 전원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므로 벗었다는 것 이외에는 보통때처럼 편안하게 사우나를 하고 나서 땀을 말리면서 맥주 한 잔을 마시는 여유를 갖는 것이 生活의 큰 즐거움이라고 한다.